

위기의 전남교육... 학생 60명 이하 386개교-초등은 2곳 중 1곳

전남교육청, 교육통계 자료...학령인구 감소 뚜렷

초등 17개교 2년째 신입생 '0명'...휴교 17개교

전남지역 초등학교 33개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 '0명'인 가운데 학생수 60명 이하 초·중·고교도 386개교로 나타났다.

24일 전남교육청이 공개한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지역 초·중·고교는 총 820개교이며 이 중 386개교(47%)가 학생수 60명 이하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는 저학년 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426개교 중 242개교(56.8%)가 학생수 60명 이하였다.

또 2023학년도 초등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본교 14개교와 분교 19개교 등 총 33개교이며 이 중 17개교는 2년연속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 중학교는 총 250개교 중 121개교(48.4%)가 60명 이하 작은학교였으며 고등학교는 144개교 중 18개교(12.5%)로 분석됐다.

중·고교는 현재 신입생 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지역 전학 등으로 인해 입학생 없는 학교는 지난해 4개교(중 2개교·고 2개교)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지역별로는 신안이 3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 34개교, 고흥 29개교, 완도 24개교, 해남 23개교, 보성 21개교, 강진·진도 각 20개교, 나주 19개교, 장흥·영암 각 18개교, 화순·영광 각 17개교, 순천 16개교, 무안 15개교, 구례 11개교, 담양·함평 각 10개교, 광양 9개교, 곡성 8개교, 장성 7개교, 목포 3개교 순이다.

학생수는 지난 2007년 31만2652명에서 2022년 20만333명으로 15년 만에 11만2319명이 감소했다.

학생이 없어 휴교한 학교는 초등 17개교이며 1명~10명 34개교, 11명~20명 60개교, 21명~30명 75개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은 학생이 없어 휴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귀객객 붐비는 광주송정역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이 귀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정운영 난맥·출구없는 정쟁”...광주·전남 설 민심, 한숨 가득

윤석열 정부 국정 불안·여야 정쟁에만 몰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팍팍해진 서민 삶
 민생안정·정치피로 호소, 지역 소멸위기 심각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출구 없는 정쟁을 벌이는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국정 운영에 우려가 컸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지역민들은 유례 없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진 삶의 고단함을 호소하며 민생 안정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민주당이 보다 더 잘했으며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지적과 함께,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서민층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하소연이 특히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신(新)공안정국 조성 등에 단일대오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서민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은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

의 삶이 전에 없이 힘든 만큼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야당 탄압에 맞서 정치개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이는 곧 민주당의 다짐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와 무능한 민생 대책, 야당 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분노 여론과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어등산 개발 등 지역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대변했다.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양당이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여당은 당권 경쟁에만 몰두해 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떠나 정쟁에만 몰두해 있는 데 대해 시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노동자 탄압을 보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여 불안함을 호소한다”며 “여·야와 정부를 보면서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사료값·비료값·에너지 가격 인상에다 고금리까지 겹쳐 농민들의 시름이 크다”며 “그나마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선거구 개편에 대해 농어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불만 소리가 더 컸다”며 “여귀성도 이제는 힘다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아 고령화의 가속이 지역과 인구의 소멸위기를 절실히 실감하게 했다”고 농어촌 현실을 보여줬다.

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의 지속과 하락한 농수축산물 가격, 여기에 농어촌의 인력난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그나마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묻어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 확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고 설명해드렸다”고 밝혔다.

정승호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